

# 方位 概念과 傳統住居의 의미에 관한 研究

##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Korean traditional Dwellings and the Cardinal Points

鄭 英 喆\*

Chung, Young-Chul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meaning of the traditional dwelling house and the cardinal points. The cardinal points is a complex concept of the body-scheme direction and celestial direction. This paper explains the meanings of the traditional dwelling house under the following three subtitles; dwelling as the image of the cosmos; dwelling as the center of the world; dwelling as the subjective space. The traditional dwellings have the prominent characteristic of the image of the cosmos and the center of the world which is regarded the human and the architecture as the microcosmos, and which communicates the heaven with the earth. The traditional dwellings which aims to harmonize the human with the nature have the subjective and meaningful space which articulates the nature through the self-systematization.

### I. 序 論

인간은 공간을 무분별하게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인지범주를 전제하여 지각하는데, 방위는 이러한 공간을 인지하는 범주의 한가지 양태로서, 공간은 이를 통하여 실제적인 것으로 체험되는 것이다.

방위는 자연과 문화, 건축을 일체화시키는 세계인식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문화와 그 특성을 기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공간의 방향설정으로서의 방위는 질서지워진 세계 안에서 살려는 인간의 욕구, 환경과의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인간 자신과 위치에 대한 인식을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간인식 요소의 하나인 방위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방위는 인간의 존재 근거인식을 것이므로 삶 자체

의 의미화 또는 질서화라고 할 수 있는 의식 및 종교와 불가분리의 관계를 지닌다.

전통주거건축은 인간 존재에 대한 意味附與로서의 사상성이 구체화되며 우리의 의식 및 사유체계, 종교가 담긴 시대생활을 담는 容器이다. 생활의 신진대사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이상의 것으로 상징적이고 우주적인 면을 갖는<sup>1)</sup> 전통주거는 생활양식과 의식세계를 지배하며 또한 사상적 근원이 되는 유교사상 및 우리 민족의 삶의 보편적 형식이며 제반 생활을 크게 지배해온 민간신앙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통사회에 있어서 기본적 사유체계인 유교사상 및 민간신앙에 나타난 방위개념을 살피고 그에 따른 전통주거의 공간구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 II. 方位概念과 空間

#### 1. 方位概念

인간은 무한하고, 미지로 가득 찬 위협적인 자

\*정회원, 경일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본 논문은 98학년도 경일대학교 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연안에서 공간을 경험하는데, 방위는 이러한 혼돈을 의미있는 질서로 구조화한다. 세계 각 지역의 인간들은 자연을 구조화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방위체계를 사용해 왔다. 방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이라는 절대적인 天空방위, 강의 상류와 하류 또는 산의 위나 아래라는 地理방위, 전후좌우라는 신체의 분절을 기초로 하는 身體방위 등이 있다. 또한 방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卽身的 방위와 자기 이외의 사람이나 사물을 중심으로 하는 상대적, 卽物的 방위로도 분류할 수 있다.

M. Eliade에 의하면 방위를 전제하면서, 동시에 방위에 의하여 인식되는 공간경험이 비롯한 것은 역사적으로 직립원인의 출현과 때를 같이한다<sup>2)</sup>고 한다. 즉 공간관념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는 直立한 인간의 육체를 중심으로 하여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으로 뻗어가는 것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었다. 이 공간 관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中心(Center)으로, 이 中心에 인간이 定位함으로써 세계는 전후좌우상하로 分節되고 조직화되며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방위는 우주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공간인식의 한 형태이면서도 그것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으면서 하나의 세계관을 이루는 기본적인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방위는 일상적인 삶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규범으로 현존하며, 삶의 질서화와 의미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러한 질서있는 환경 내에 인간이 거주함으로써 심적 평안과 생활상의 안전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 2. 身體的 方位와 空間

방위에 의하여 인식되는 공간경험이 직립원인의 출현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듯이, 공간은 直立된 인간 앞에 전개되며 인체의 구조와 일치되게 전후, 좌우로 즉각 分化된다. 인간은 우주를 자기 조직화하는 고유 시스템으로서 존재하는데, 자기

조직화의 방법으로는 기본적으로 전후좌우의 정위와 중심화가 있다. 이 정위와 중심화를 통해서 자기조직화가 행해지고 신체적 방위를 통해서 우주가 분절화, 비균질화되고, 의미있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공간 내에서 목적지를 지향한 순간에 목적지 및 다른 여러 점과의 공간관계 속에 인간이 位置되고 空間이 分節되고 構造化된다. 인간 현위치와 목적지라는 2점을 연결함으로써 軸이 생성되며, 軸이 생성됨으로써 전후좌우라는 기본적인 신체적 方位가 출현한다. 인간을 중심으로 한 신체적 방위인 전후좌우와 상하는 공간에 나타나는 신체의 座標와 位置<sup>3)</sup>인 것으로, 이 身體正面的 기본적 방위감은 중심의 감각은 물론 前後左右, 上下의 감각을 구성하는 精神物理學的 座標를 발달시켰다. 신체적 방위 전후좌우상하는 신체의 기능적 비대칭이라는 생리적 사실에서부터 발달된 주관적 공간개념으로서, 동서남북과 같은 객관적, 수학적 개념과 다르며 중력이나 방위들과 같은 자연현상에 관계되며 따라서 여러 성격들을 나타낸다<sup>4)</sup>. 이처럼 신체적 방위는 중심에서부터 주위의 공간을 일정한 방향으로 분할하여 얻어진 공간인식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로써 경험되는 공간은 상징적, 신화주술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재 근거인식을 위한 현실적 경험인 방위는 종교나 사상과 매우 깊은 관계를 지니며, 각 방위가 갖는 상징적 표상은 종교문화 속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공간 전체나 환경을 신성한 초월적 원칙에 의하여 질서지워진 것으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신성지리적(sacred geography) 지각양태로, 지리-생태학적 공간을 지탱하는 '의미의 지도'를 그리게 함으로써 종교적 우주관을 가능하게 한다. 이외 예는 주택, 마을, 도시 등이 질서지워진 소유주라고 하는 세계관이거나 그러한 지상의 현실을 천상의 원형을 모방한 것, 또는 재현한 것이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 구

체화되고 있다<sup>5)</sup>.

또 하나는 방위 자체에 대한 독특한 종교적, 의례적 규범과 자세이다. 방위의 설정과 그로부터 비롯하는 공간의 구조화는 방위에 의하여 규제되는 실존적 태도를 유발하고, 그러한 태도는 방위신앙으로 구체화되면서 방위에 의한 규범적 의례 행위를 실제적인 삶, 건축 속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의 예에는 방위의 원칙에 의한 의례 행위가 속한다.

### 3. 傳統社會의 方位 概念

#### 1) 儒敎思想의 方位概念

자연적 질서를 근본원리로 하는 사유가 발전된 성리학은 천리와 인성이 그 본질에 있어서 어떻게 합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심과제로, 우주를 대우주로 그리고 인간 및 사물을 소우주로 보고 동서남북의 공간과 춘하추동의 시간 변화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 질서에 모든 것을 합일<sup>6)</sup>시키려 하였고, 마땅히 해야 하는 올바른 도리와 만물들의 일정한 법칙들을 표현할 때 '天'이라는 개념을 썼다<sup>7)</sup>

이러한 天, 우주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역학적 우주관은 모든 학문의 기반을 이루는 것으로, '天文'<sup>8)</sup>이라는 표현처럼, 易, 陰陽, 五行은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출발하여 점차 개념 자체가 변용 또는 상호 융화하며, 우주의 기원과 구조를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의미로 변모한다. 유교에 있어서 우주의 질서체계 및 생성과정은 유학자들의 사유체계에 있어서 중심적 요소이고, 그 중 동서남북 방위의 체계 또한 근본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우리 민족의 기층적 질서나 윤리체계 등 전통 문화는 그 사상적 근원을 유교사상에서 찾을 수 있는데, 유교적 전통사상의 중심개념은 禮라 할 수 있다. 禮는 하나의 순서이며 질서체계<sup>9)</sup>로서, 이를 위한 각종 의례는 의식을 행하는 장소와 방법, 절차, 복식 등을 질서체계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참례자의 위치를 長幼尊卑와 방위의 위계에 따라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례를 규정하고 있는 禮書에서부터 방위개념을 도출할 수 있는데, 禮書에서는 특정인을 기준으로 그 전후좌우로 가리키는 신체적 방위와 동서남북으로 지칭하는 천공방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방위를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동서남북은 태양의 운행에 따른 동서남북이라는 절대적인 천공방위와는 다르게 신체를 전제로 한 개념이다. 家禮에 따르면 '무릇 집의 제도에 있어서 그 집이 어느 쪽을 향하고 어디를 등진 지를 묻지 않고 다만 앞이 남이 되고 뒤가 북이 되며 왼쪽이 동이 되고 오른쪽이 서가 된다.'<sup>10)</sup>라고 방위를 지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후좌우의 기준은 주된 건물로서, 이를 남향으로 하면 자연의 절대 방위와 예서에 나타난 의례상의 동서남북의 방위가 일치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물의 坐向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남향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례에서는 주 건물의 앞을 남이라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그 전후좌우를 동서남북으로 설정하였다. 즉 유교의 동서남북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에 관계 없는 신체적 방위로서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앞을 남으로, 뒤를 북으로, 왼쪽을 동으로, 오른쪽을 서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한편 유학자들은 좌향의 위계에 대해 절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의례에서 神座를 모시는 主壇이나 御座와 같은 높은 자리(上座), 또는 중심 건물들이 남향을 전제로 하는 것도 좌향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천공방위와 신체적 방위가 결합된 방위개념에서 각 방위는 상징적 의미와 위계를 갖게 되는데, 복위도의 우리나라에서 북좌남향은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며 左右 곧 東西의 우위성은 동쪽 곧 左가 상위를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좌우(동서)의 위계 체계에서 東上의 제도는 의례시의 좌석이나 향배, 가례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sup>11)</sup>, 東上을 취하는 이유는 조선시대 禮學의 宗長이라 추앙되는 沙溪 金長生의 말에 의하면 陰陽의 구별이 있기 때문이다<sup>12)</sup>. 의례 시 좌석의 위치 및 向背를 살펴보면, 주단이나 상좌, 주건물이 북좌남향하게 되면 그것의 좌우 즉 동서에 있어서 동쪽에는 문관, 賓禮 時 明 나라의 사신, 長子, 활을 맞힌 사람들이 위치하고, 반면에 서쪽에는 무관, 활을 맞히지 못한 사람, 適子 이하가 위치함으로써 동쪽이 서쪽보다 상위의 자리이며, 또한 가장 하위의 자리는 남쪽에서 북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양의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의식인 전통 혼례에서 醮禮를 치를 때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 위치되 壻東婦西로 정해지고, 祭禮에서도 사당에서 禮를 행할 때 북좌남향의 신위에 대해 남자는 신위의 좌측인 동쪽에서, 여자는 우측인 서쪽에서 북향을 하도록 되어 있어 역시 남좌여우(男東女西)의 東上의 제도를 따르고 있다<sup>13)</sup>.

전통사회에 있어서 방위개념은 인간을 기준으로 하는 자기중심적인 卽身的, 신체적 방위라 할 수 있다. 신체적 기본방위는 전후좌우의 좌표가 태양의 운행에 결정되는 절대적인 동서남북의 천공방위와 결합되어 각 공간과 방위는 매우 복잡한 意味와 聯想을 띠게 되었다. 조선시대 방위개념은 북좌남향을 최상위로 보고 음양의 구별에 따라 신주를 모실 때는 서쪽을 상위로 하는 尊右思想을 제외하고, 그 밖의 모든 의례에서는 동쪽을 상위로 하는 東上의 제도 또는 男左女右(男東女西)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다.

## 2) 民間信仰의 方位 概念

전통적인 종교의례의 하나인 무속신앙에서도 방위는 주요한 상징체계로 기능하고 있다. 무속신앙의 방위는 근본적으로 수직적, 수평적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우주가 천상, 지상, 지하로 삼분되어 있다고 보는 무속의 수직적 우주관에서부터, 무속에는 상하라는 수직적 방위개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속제외는 하늘과 땅 사이의 막

힌 길을 뚫는 행위<sup>14)</sup>인 것이며, 무속신앙의 수직 교통구조는 지상과 천상과의 교섭이 발생하는 통로와 세계의 축을 암시하며 그 수직축은 영역내의 중심점과 관련된다.

한편 무속의 현실적 공간경험은 수평적인 것으로서, 방위에 대한 개념은 무속의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속의례에서 방위신이 오방신장이나 오방장군 또는 단순히 오방신으로 호칭되듯이 방위에 대한 관념은 동남서북중앙의 五方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오방은 공간의 총체적 상징으로, 다섯 방위는 각각 靑鶴, 赤鶴, 白鶴, 黑鶴, 黃鶴의 오색에 대응되듯이 오행사상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속신앙의 방위가 수직적 및 수평적 개념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서남북중앙의 오방에 중앙에서 상하라는 수직적 개념을 더하여 입체적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방위의 첨가는 장승의 경우에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장승은 마을을 향하여 오른편에 천하대장군, 왼편에 지하대장군을 세운다. 장승제의 경우, 男偶는 동쪽에 세우고 天上天下逐鬼大將軍之位라고 일컬으며, 女偶는 서쪽에 세우고 東西南北逐鬼大將軍之位라고 일컫는다. 수직적인 공간분할(천상천하)과 수평적인 공간분할(동서남북)이 아울러 이루어짐으로써 鬼로 상징되는 혼돈이 질서화되는 것이다.

선인들의 속신을 지배한 가장 대표적인 방위신앙은 풍수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사상은 지형이나 방위를 통하여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본적인 것은 山, 水, 방위, 사람 등 4자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 중에서도 방위와 연관된 것은 풍수사상 중에서도 坐向論으로 체계화되어 있다. 좌향은 穴의 등진 방위에서 바라보이는 방향을 뜻하는 것으로, 곧 穴의 뒤쪽 등진 방위를 '坐'로 그리고 穴의 정면을 '向'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순한 방위개념이 아니다. 한 지점이나 장소는 무수한 방향을 가질 수

있으나 선호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좌향은 단 하나뿐이다. 하나의 건축이 특정한 좌향을 갖기까지 검토되는 향은 절대향과 상대향으로 구분되지 만<sup>15)</sup>, 좌향이 혈의 등진 방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방향을 뜻하므로 바로 穴處에 사람이 정위하여 주위를 구조화하는 신체적 방위가 전제되는 것이다.

풍수지리에서 사용하는 근본적인 방위는 羅經 혹은 佩鐵이라 일컫는 나침반에 의하여 결정된다. 天盤, 地盤, 人盤으로 구분하고 복잡한 分度를 마련한<sup>16)</sup> 패철은 방위 측정뿐만 아니라 시공간의 우주적 법칙을 표현한 우주의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민중들이 신봉했던 건축사상인 양택론은 그 내용이 주로 방위론에 치중된다. 이것은 집이 자리한 방위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방의 집 중심에 대한 방위는 그 실에 거주하는 사람의 길흉화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는 것이다<sup>17)</sup>.

### III. 傳統住居의 配置

전통사회의 방위개념은 신체적 방위와 천공방위가 결합되었으므로 매우 복잡한 상징적 의미와 위계를 띠게 되었다. 전통사회에는 유교와 민간 신앙이 일반 백성의 의식과 생활을 규제하였다. 주거건축은 삶의 공간일 뿐만 아니라 유학적, 신앙적 의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이의 방위개념이 반영됨은 당연하다고 여겨진다. 방위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각 방위의 위계적 질서체계는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공간계획에 있어서 사상적 조영원리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전통상류주거는 대체로 마당을 중심으로 몸채를 뒤로 앉히고 맞은 편에 사랑채를 배치하며 양 옆에는 곁채를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口자가 되도록 한다. 보다 규모가 커지면 사랑마당을 따로 사랑채 앞에 설정하여 또 하나의 영역을 형성해 간다. 전통주거건축의 구성은 채와 마당이 주

변과 중심으로 부분이 형성되고 이러한 부분의 성립과 확장으로 우주속의 소우주인 전체로서 주거가 형성되게 된다.


각 방위에서의 좌향은 앞서 보았듯이 북좌남향을 최상위로 하여 東(左)上이란 하나의 위계질서가 성립되어 있다. 주건물은 남향을 전제로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그 전면을 南으로 여기고 이에 준하여 위계에 따라 건물을 배치한다. 주건물의 향이 결정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좌우의 위계질서는 신주나 위패 등을 모실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례에서 좌측이 상위인 즉 東上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위에 따른 위계적 질서체계는 전통주거의 배치 및 공간계획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대부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口자주택의 공간의 구성은 제사를 지내는 대청의 좌향이 남향을 전제로 할 때 우측(서)은 여성의 공간으로 안방과 부엌이 자리하며, 좌측(동)은 사랑방을 비롯한 남자의 공간, 남쪽에는 문을 비롯하여 행랑채가 배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좌우란 기준이 되는 대상에서 보았을 때, 곧 신체적 및 卽身的 좌우로서 그것을 보는 사람의 좌우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의례에서 나타나는 男左女右의 원칙에 따라 주택의 물리적 형태를 만든 것으로 東上의 원칙을 취한 것이다. 집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사당터를 먼저 잡았으며 사당은 '군자가 집을 지을 때 먼저 家廟를 정침의 동쪽에 세우라(君子 將營宮室 先立祠堂 於正寢之東)는 家禮 본문처럼 똑같은 東上의 원리를 따라 배치되는데, 실제에 있어서도 집안의 정신적인 중심치이며 가장 신성한 공간인 가묘는 대개는 정침의 동북쪽에 위치하는 것이다<sup>18)</sup>.

본 연구는 좌향에 대한 사유체계와 건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1900년 이전 조선 중기, 후기의 주택 중 사당이나 가묘를 갖추고 있으며 보존 상태가 양호한 전통주거 31개소를 선정하여 문헌과 답사 등을 통하여 안채와 사랑채, 사당의

표 1. 대상 주거의 좌향 및 공간구성

대상 주거	건축년도	위 치	몸채좌향	공간(좌우)구성		사 당	
						좌향	위치
강릉 임경당	1530	강원도 명주군 성산면 금산리	간좌곤향		우양좌음	축좌미향	서북
강릉 선교장	1815	강릉시 운정동 431	간좌곤향		우양좌음	간좌곤향	동
중원 윤민걸	1700년대	충북 중원군 엄정면 미내리	손좌건향		좌양우음	손좌건향	동남
회덕 송준길	1642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192	축좌미향		좌양우음	축좌미향	동북
아산 참판택	1800말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술좌진향		우양좌음	술좌진향	북
아산 이득선	1800말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해좌사향		좌양우음	해좌오향	동
아산 영암택	1800말	충남 아산군 송악면 외암리	계좌정향		좌양우음	축좌미향	동북
예산 추사고택	1700말	충남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유좌묘향		좌양우음	유좌묘향	동남
논산 윤증택	1670년대	충남 논산군 노성면 교촌리	자좌오향		좌양우음	자좌오향	동남
정읍 김동수	1784	전북 정읍군 산외면 오공리	임좌병향		좌양우음	임좌병향	동북
구례 윤조루	1776	전남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	축좌미향		우양좌음	축좌미향	동북
윤선도고택	1600년대	전남 해남읍 연동	갑좌경향		좌양우음	갑좌경향	동
함양 정여창	1700년대	경남 함양군 기곡면 개평리	술좌진향		좌양우음	계좌정향	동북
하회 충효당	1600년대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동	묘좌유향		좌양우음	계좌정향	동
하회 양진당	1600년대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동	계좌정향		좌양우음	계좌정향	동북
안동 임청각	1515	경북 안동시 법흥동	해좌사향		좌양우음	해좌사향	동북
의성김씨대종가	1590년대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계좌정향		우양좌음	계좌정향	서북
의성김씨소종가	조선중기	경북 안동시 임하면 천전리	임좌병향		좌양우음	자좌오향	북
가일수곡종택	1792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동	축좌미향		좌양우음	축좌미향	동북
고성이씨종택	1700년대	경북 안동시 법흥동	임좌병향		우양좌음	간좌곤향	동남
의성 김동주	1786년대	경북 의성군 단촌면 후평동	임좌병향		좌양우음	간좌곤향	동북
예천 권씨종가	1589	경북 예천군 용문면 죽림동	술좌진향		좌양우음	술좌진향	동북
영천 정재영	1750	경북 영천시 임고면 선원동	간좌곤향		좌양우음	간좌곤향	동북
월성 손동만	1458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간좌곤향		좌양우음	간좌곤향	동북
월성 관가정	1500년대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해좌사향		우양좌음	해좌사향	동북
월성 수졸당	1616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건좌손향		우양좌음	곤좌간향	서
월성 독락당	1515	경북 월성군 안강읍 옥산리	임좌병향		좌양우음	인좌병향	북
월성 향단	1600초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계좌정향		좌양우음	계좌정향	동북
월성 이동기	1780	경북 월성군 강동면 양동리	자좌오향		좌양우음	계좌정향	서북
울산 황의석	1589	경남 울진군 기성면 사동리	자좌오향		좌양우음	자좌오향	동
경주 최식택	1700년대	경북 경주시 교동	임좌병향		우양좌음	임좌병향	서북

\*회 안채,  사랑채, 사당의 위치는 몸채로부터의 위치.

좌향이나 위치 등을 조사하였다(표 1). 연구대상 주거건축의 배치형식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안채는 壬坐丙向의 좌향이 가장 많으며, 안채의 좌향 순서는 조사대상 31개소 중 남향(13/42%), 동남향(7/23%), 서남향(7/23%)의 차례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31개소 전통주거의 공간구성은 우선 안채와 사랑채의 전후의 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1처럼 사랑채가 안채 앞에 위치되는 前陽後陰 형식이 26개소(84%), 그림 2처럼 사랑채와 안채가 옆으로 병렬되는 좌우병행 형식이 5개소(16%)이며, 다음 안채와 사랑채의 좌우 관계를 살펴보면 사랑채가 왼쪽에 안채가 오른쪽에 위치되는 左陽右陰(그림 3)이 22개소(71%), 右陽左陰(그림 4)이 9개소(29%)로 나타나서 앞 또는 좌측이 陽, 뒤 또는 우측이 陰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안채의 평면은 뒤쪽 또는 우측에 ㄱ, ㄷ, ㄴ자형으로 내향적이고 구심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고, 사랑채는 앞쪽 또는 좌측에 一자형, ㄷ자형으로서 외향적이고 발산적인 형상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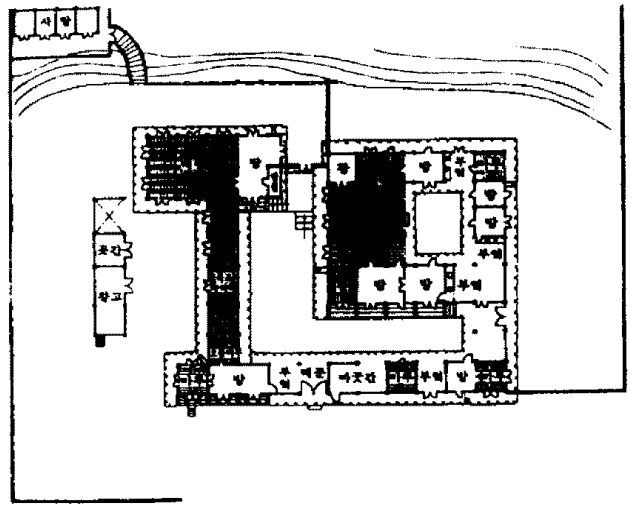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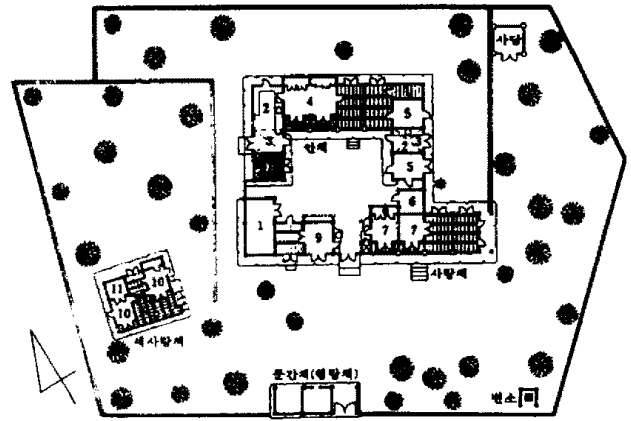


그림 2. 안동 의성김씨 대종가.



1. 고방 2. 부엌 3. 상부다락 4. 안방 5. 배덕방 6. 새덕처방  
7. 큰사랑 8. 서고 9. 사랑 10. 방 11. 책방

그림 3. 가일 수곡종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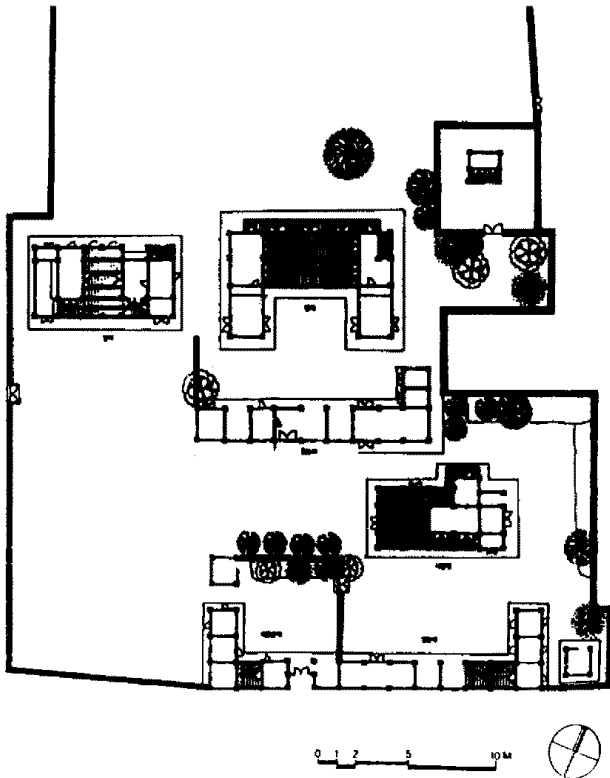


그림 1. 정읍 김동수 주택.

주역에 '陽은 앞에서 풀고, 陰은 뒤에서 거두어 들인다'는 것과 '좌측은 陽, 우측은 陰'이라 하여 각각 남녀의 위치를 상징했던 左陽右陰의 음양설에 따르는 배치형식으로서, 음양론적 이분법에 의한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은 대부분 전후, 좌우로 구성된 前陽後陰, 左陽右陰의 형식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당은 부활을 상징하는 주거지의 좌측후면(동북방향)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다. 조사대상 31개 주거 중 사당의 좌향은 艮坐坤向과 癸坐丁向이 가장 많으며, 남향(13/42%), 서남향(10/32%), 동남향(3/10%)의 순서였다<sup>19)</sup>. 안채와 사랑채와의 위치에서 보면 사당 위치는 안채로부터 동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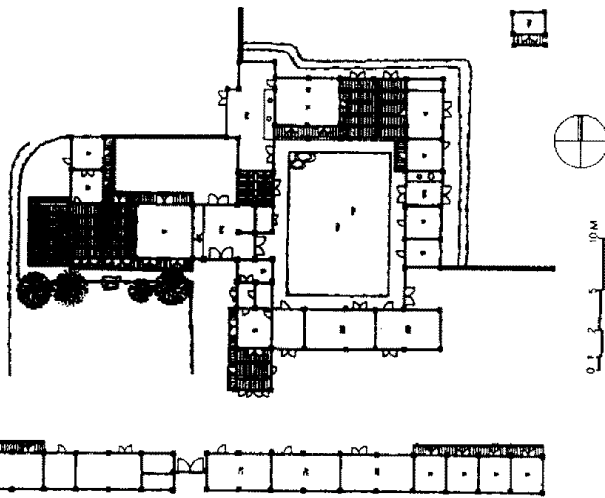


그림 4. 구례 운조루.

(14/45%), 동향(5/16%), 북서향(4/13%), 북향(3/10%)의 순서이다.

또한 이러한 방위의 위계 체계는 동쪽 마을의 공간구성에서도 나타난다. 대개의 동쪽마을은 집촌형태로 입향조의 정주에 의한 상향적 위계가 형성되어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중심에 종가가 자리잡고 점차 분파된 후손들의 공간이 우측 아래 쪽으로 계열화되어 사회적 위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관련을 가지며 배치되어 있다. 순천 박씨의 집성촌인 묘골은 삼면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 氣가 안정된 소위 명당에 자리잡고 있다. 원래 이 마을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종가로부터 세 아들이 분가하여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로 東岸, 中岸, 西岸의 영역을 이루며 종가 밑의 세 부분을 평행하게 구성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東岸의 집들은 장손계이므로 집의 규모도 中岸과 西岸에 비해 크고 제법 반가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도 東岸만이 어느 정도 보존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많이 쇠락하여 있다<sup>20)</sup>. 이는 입향조에서 자손이 분파<sup>21)</sup>하여 주거지를 정할 때도 동상의 원칙에 따라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첫째, 둘째, 셋째의 순서로 주거지가 정해짐으로써 방위의 위계 체계에 준함을 알 수 있다.

또 이는 양동마을에서도 볼 수 있다. 양동마을은 孫昭를 입향조로 하는 月城 손씨와 李彦迪의

자손들인 驢江 이씨의 동성집단의 대표적인 반촌이다. 마을의 지형은 불자 형국으로 4개의 산줄기와 2개의 큰 골짜기로 이루어진다. 이 두 골짜기 깊숙한 곳에 각각 손씨종가(孫東滿댁)와 이씨종가(無忝堂)이 자리잡고 있고, 그 아래 서쪽으로 손씨 지손가인 觀稼亭과 이씨 지손가인 香壇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어 역시 東上의 우위원칙을 보여주고 있다.

#### IV. 傳統住居의 意味

##### 1. 小宇宙로서의 住居

전통사회의 방위는 동서남북중앙이라는 五方으로 인식되고 중앙에서 상하라는 수직적 개념이 더해지는데, 오방위에 대한 관념은 '동방에는 靑帝之神, 남방에는 赤帝之神, 서방에는 百帝之神, 북방에는 黑帝之神, 중앙에는 黃帝之神'<sup>22)</sup>처럼 오방지신<sup>23)</sup> 및 오행사상과 관련된다. 방위개념이 오방지신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건축의례 및 가신 신앙과 관련지어 보면, 전통주거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건축의례에 있어서 터 닦는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지신은 터주에 해당된다. 터주는 오방지신 중 중앙에 거하여 다른 사방신을 다스리고 土를 관장하는 황제이므로<sup>24)</sup>, 이 터주가 거하는 곳은 오방의 중앙에 해당하는 곳이고 터주가 관장하는 터에 세워진 주택 역시 관념적으로 오방의 중앙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즉 황제에 해당하는 지신이 관장하는 터 위에 세워진 하나의 주택은 주위의 사방의 신이 한정하는 영역 속에 설정되는 하나의 중심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방에 대한 관념과 이에 따른 영역 및 중심의 개념은 중심으로 상징되는 주택 내에서 반복된다. "네 귀에 주추뵈고/먹줄새겨 네 지동 가운데는/상지등을 세워놓고"<sup>25)</sup>처럼 성조가에서 불리듯이 방위개념은 '네 귀, 가운데'의 오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네 귀에 수주를 박고 네 기둥을 세우는 것은 영역의 한정이며 그 가운데 상기둥을 세워 대들보를 얹는 것은 한정된 영역 속에 하나의 중심을 설정하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때의 중심은 자신이 관장하는 영역의 중심인 주택 속에 설정된 또 하나의 중심으로서, 중심 속의 중심인 것이다. 오방위의 관념에 바탕을 둔 이 중심 속의 중심은 나아가 상기둥의 상부에 봉안되는 성주신에 의해 중심으로서의 의미가 배가된다. 최고의 천신인 성주신이 봉안되는 상기둥이 세워지는 위치는 천지교통되는 중심으로 상징될 수 있는 것이다.

유교는 천리와 인성의 합일이 주 과제로서, 인간 및 사물을 소우주로 보고 동서남북의 공간과 시간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 질서에 모든 것을 합일시키려 한다. 그러므로 우주가 중심에서 동서남북으로 전개되듯이 중심의 주위에 구성된 전통 주거도 하나의 세계모형, 소우주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각 소우주는 천지교통하는 성스러운 중심을 갖는다.

이상의 사실에서부터 전통주택이 우주적 이미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부분이 전체를 나타낼 수 있으며 소우주는 대우주를 나타낼 수 있다<sup>26)</sup>는 고대인이 갖고 있었던 우주론적 사고방식인 파르소 프로 토토적 사고(pars pro toto thinking)에 근거하는 것이다. 방위에 의한 상징적 표상은 초월적 원칙에 의해 질서지위된 것으로 수용하는 신성지리적 지각양태로 인식되며, 이 때의 전체 또는 우주적 이미지는 대지 전체로부터 마을, 주택, 주택 내의 세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의 전 범주에 걸쳐 반영된다<sup>27)</sup>.

易, 陰陽, 五行의 우주론과 무속신앙은 인체의 논리를 우주 및 삼라만상에 적용시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우주 및 삼라만상의 논리를 인체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 있어서 주거건축 공간구성원리는 우주 속의 소우주인 인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체의 擴張概

念으로서 신체적 방위 및 그 조직, 원리가 건축에도 투영되며 이에 따른 中心과 方位의 개념으로부터 하나의 구역이 형성되어 이 구역은 다시 하나의 중심이 되어 우주 속의 소우주가 된다는 것이다.

이상으로 전통사회의 선인들은 신체 및 천공의 복합적 방위로서 세계를 오방으로 인식하며 주초 놓고 기둥을 세워 건축하는 행위를 오방과 관련 지움으로써 주택 속에 오방의 개념과 우주적 이미지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늘이 중앙 혹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의 커다란 다섯 구역(龍虎雀武)으로 나누어졌다고 여긴 고대 동양의 천문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통주택은 우주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소우주인 것이다.

## 2. 世界의 中心으로서의 住居

‘일상생활의 軸’으로서 생활의 시작점이며 종착점인 주거<sup>28)</sup>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데<sup>29)</sup>, 중심이란 동서남북 또는 전후좌우 방위의 기준이 되는 점으로, 인간이 심리적 존재로서 안정감을 느끼는 곳이다. 땅과 하늘을 맺는 세계축, 즉 세계의 기둥 또는 세계의 나무와 동일시되는 중심성을 보이는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주거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sup>30)</sup>가 보인다.

인간의 공간은 주체를 축으로 하여 신체적 방위를 통해 중심화되어 있다. M. Eliade는 ‘Symbolism of Center’라는 용어를 쓰면서 中心의 象徵性에 대해 광범위하게 말하며, 우주가 중심에서 전개하여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뻗어나간 것과 같이 중심의 주위에 구성된 정방형이 하나의 세계모형(imago mundi)이며 인간이 사는 촌락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sup>31)</sup>. 인간은 自己中心의 세계를 感知하는 것으로<sup>32)</sup>, 공간구성에 있어서도 中心과 周邊의 개념이 보편적이었다.

전통주거건축은 소우주인 인간이 존재하며 주위를 신체적 방위로 분절하며 정위하는 강한 中

心性을 보인다. 전통사회에서 영역은 하나의 소우주로서 인식되며 각각의 소우주는 聖域으로서 중심을 가지는데, 이들 중심은 모두 地下界, 地上, 天上界의 세 영역을 交通시키는 능력을 가진다. 중심은 주거에서의 마당이나 대청, 마을의 장승이나 서낭당에서처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垂直性은 天地交通의 의미로서 관념적 수직성과도 일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주창조의 원형을 반복함으로써 聖別되어야 한다. 선인들은 건축할 장소를 聖別함으로써 즉 터가 중심이 되게 함으로써 그 장소의 실존성을 확보하였다. 주거건축의 공간구성도 안채의 대청을 중심 공간으로 하여 求心的으로 공간이 집결된다. 주거에서는 천신계의 성주신을 가장 중심되는 대청에 봉안함으로써 천신이 하강하며 하늘과 교통이 이루어진다.

민간신앙에서 나타나는 중심은 천지교통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되며 이러한 중심은 신앙심리와 신앙행위에 의해 구현된다<sup>33)</sup>. 따라서 민간신앙에 있어서 건축은 소우주와 인체의 조직 및 원리를 반영하며 이에 따른 中心과 方位의 개념으로부터 영역과 중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민간신앙은 인간과 하늘, 따님의 만남을 상징하는 종적구조를 하며, 솟대의 교섭을 통하여 솟대를 중심으로 한 영역이 속의 공간에서 聖의 공간으로 성화하게 되며<sup>34)</sup>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풍수사상에 있어서는 明堂<sup>35)</sup>, 穴<sup>36)</sup>에 위치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자연을 限定하는 중심성을 보인다. 풍수의 전체 체계에서 혈과 명당이 가장 중심장소로 局內에서 가장 높은 위계를 가지며 주변은 이를 중심으로 한 구심력을 지닌다. 民宅三要에서도 보이듯이, 각실의 배치는 九宮의 방위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각 내부공간적 외부공간으로서의 중정들은 울타리를 전체로 보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서의 五行에 의해 배치되었다<sup>37)</sup>. 풍수의 구성요소에 의해 한정되고 천지가 만나는 중심은 혈이며 그 주위는 명당으로 인간이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러한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주거에 대해서 Eliade의 소우주와 풍수의 국면이 다같이 중심과 영역개념을 가지며 穴 center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는 등 풍수지리설과의 연관 등을 논하기도<sup>38)</sup> 한다.

전통주거는 변화무쌍하고 위협적인 외부세계에 대해 부동의 중심이 되며 주거를 성역화, 내부화함으로써 인간에게 평안을 주는 것인데, 이는 마당에 있어서 좌향결정이나 지신밟기, 복토흙치기의 습속, 무가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전통주거에서 방위를 판정할 때, 나침반의 중심을 太極 혹은 天井이라 부르는데<sup>39)</sup>, 이는 “太極의 중심, 즉 마당의 중심에 나반을 놓아 살펴져야 하는 것으로”<sup>40)</sup>, 좌향을 결정할 때, 마당은 주거의 정위의 원점이 되고 지신이 봉안된다. 이 주거의 정위는 세계의 중심이란 원점의 부동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지신은 이 부동성이 신으로서 對象化하여 현현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지신밟기<sup>41)</sup>는 마을 공통의 지반을 밟아 진정시켜 마당을 부동의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부동의 원점을 재구축하고 가족 및 가정의 수복과 평안을 얻으려 하는 것이고, 복토흙치기<sup>42)</sup>는 부동의 중심성을 지닌 마당의 흙을 아궁이에 바름으로서 아궁이도 가장 안쪽에 있는 부동의 중심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窀王動土經」<sup>43)</sup>은 토신과 관계되어 수평방향으로 동서남북중앙의 장소적 질서가, 또 조왕에 관계되어서는 수직방향으로 上中下의 장소적 질서의 확립이 목표로, 주거를 중심화, 내부화하는 것이다. 즉 아궁이의 구축 때 동서남북중앙, 상중하의 방위에 따른 수평 및 수직적 장소질서가 확립되도록 기원하는 것이며 주거는 보호되고 안정된 중심, 내부가 되는 것이다.

### 3. 主體的 空間으로서의 住居

우주의 이미지로 인식되는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곧 즉신적으로 우주를 지각하며 공간을 조

식화한다. 즉 환경에 대한 인간의 내적 불안은 인체를 空間知覺의 기준으로 하여 신체방위를 통하여 무한한 공간에서 하나의 場所를, 小宇宙를 만들려 하였다<sup>44)</sup>. 인간의 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과 환경 사이의 역동적인 균형을 세우려는 것이다<sup>45)</sup>.

즉신적, 신체적 방위를 통해 경험하는 전통건축공간은 인간 특유의 지각, 인식의 작용구조 및 그 신체적 구조에 기인된다. 즉 신체 이미지는 환경 내에서 인간의 실존을 위한 공간적인 構造化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인간은 주관적 身體에 의하여 세계에 定着하는데, 이로써 인간존재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구성하며,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세계를 구성하게 되고, 세계는 인간에게 있어 구체적, 주체적으로 경험되는 것이다. 이런 경험소요공간의 특질이 정서적 價値附與에 의한 이방적인 분절구조를 갖기 때문에 전통주거건축공간은 주체적 공간이 된다.

감각이나 지각의 대상이 되는 공간은, 수학적 공간과 체험되는 공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數學的 空間은 동서남북처럼 인간과 관계없이 객관적, 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他者的인 것이고, 인간에 의해 體驗되는 공간은 전후좌우처럼 인체 전체로 파악되는 구체적, 주관적인 것으로 身體的, 인간중심적, 恣意的 空間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이 파악하는 공간은 신체적 방위인 전후좌우상하로 분절되고 구별되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구체적 경험공간은 不等質性, 異方性의 특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전통주거건축은 신체의 생리적 사실을 의식화시킨 공간이고, 신체와 가장 가까운 주위와의 동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는 主體的 空間으로, 自空間이라 할 수 있다. 곧 전통주거건축공간은 분명히 논리적 공간을 넘는 積極的 意味를 갖는 주체적 공간이며, '살려진 공간'이고, 결코 기하학적 관계로 환원할 수 없는 것이다.

좌향을 설정할 때에 좌와 명당이라는 두 장소

가 전제되는데, 전자는 본체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서 통상 마루에 해당되며, 후자는 지남침이 놓이는 장소인 마당에 해당된다. 그 때문에 마당의 중심에서 마루의 방위와, 또 그 반대로 마루에서 마당으로의 방위에 의해 '좌향'은 설정되게 되며, 이로써 호주는 물론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일족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어졌다. 전통적 주택에 있어서 이 장소를 결정하고 방향, 방위를 정하는 것은 인간존재의 근저에 관계되는 것이고, 좌향을 정하는 것은 비로소 사람이 사람으로서 생활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장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좌향의 설정을 장소에 근거하여 보면 우선 마당 중앙 지남침이 놓여야 할 장소가 모든 장소의 원점으로서, 절대적인 곳이 되며, 마당에서부터 특이화된 장소로서의 마루가 거기에서부터 방향 잡혀 정위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마루를 戶主의 坐로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좌우에 주위세계를 의미를 갖고 전개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마당과 마루는 고대 왕자의 祭場, 王座에 통하는 것으로, 자기 정위의 과정에서 왕좌가 나타나는 것이다<sup>46)</sup>.

주택의 주위 세계는 동서남북 또는 전후좌우라는 신체적인 방위에 위해 질서잡히게 되고, 좌향은 그러한 질서화의 기준이 되는 방향인 것이다. 여기서 주위 세계의 질서화에 있어서 그 원점으로서 신체(호주)가 위치되고 그 신체의 向이 방위와 겹쳐지면서 좌향의 설정에 결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주목된다. 신체는 집과 함께 방향, 방위가 잡히고 주위 세계를 전후좌우로 분절해 의미부여하기 때문에 좌향의 설정이 신체와 집과의 내적 관계를 전제로 하여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안채를 세워야 할 장소로서의坐는 그 이름이 나타내는데 대로 안채의坐이지만, 그것과 함께 그곳에 사는 사람들, 특히 그 집 호주의坐이기도 하다.

선인들은 동서남북의 기본방위와 수직축으로

구성된 우주체계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우주와 관련을 맺어온 것이며, 전통주거는 우주에 대하여 전후좌우의 방향을 정위함으로써 인간과 우주 사이의 추상적 현실, 곧 의미를 파악하는 주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주거건축은 中心化를 통해서 자기조직화가 행해지고 즉신적, 신체적 방위라는 인체의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이 분절화되고 비균질화되며 논리적 공간을 넘어 적극적 의미를 갖는 인간중심적인 주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 IV. 結 論

공간인식 요인의 하나인 방위는 질서지워진 세계 안에서 살려는 인간의 욕구나 주변 세계와의 의미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 등을 상징한다. 전통사회의 방위개념은 인간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전후좌우상하라는 卽身的, 身體的 방위에 동서남북의 천공방위가 결합되어 매우 복잡한 상징적 의미와 위계를 띠게 되었다.

방위개념은 동서남북중앙 또는 전후좌우중앙이라는 오방이 기본으로 음양오행 등 동양 우주론과 연관되며, 각 방위의 위계적 질서는 북좌남면을 가장 상위로 하며, 이것을 기준으로 한 左右(東西)의 위계는 음양의 구별에 의해 동쪽을 상위로 하는 男左女右(男東女西)의 원칙을 따른다. 이 방위의 위계체계는 전통주거 및 마을의 배치나 공간구성 등에 조영 원리의 하나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방위개념을 통해 본 결과, 전통주거건축은 우주 속의 소우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인체의 확장개념으로서 그 조직 및 원리가 반영되며 이에 따른 중심과 방위의 개념으로부터 하나의 영역이 형성되고 이 영역은 다시 하나의 중심이 되어 우주 속의 소우주가 되는 것으로, 전통주거는 우주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통주거는 소우주인 인간을 主體로 하여 전후좌우상하로 분절되고 구성되는 강한 중심성

을 보인다. 이 주거의 정위는 세계의 중심이란 원점의 부동성을 전제로 하여 성립되며 방위에 관련된 의례와 민속을 통해 내부성과 중심성이 강화되며 이로써 주거의 내부질서가 확립된다. 그리고 전통주거는 卽身的, 신체적 방위라는 인체의 자기조직화를 통해서 주위를 분절하고 비균질화하여 적극적 의미를 갖는 인간 중심의 주체적 공간이 된다.

전통주거건축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주체로 하여 의미가 부여된 신체적, 卽身的, 주체적 공간으로서, 이 질서있는 공간 속에서 선인들은 심적 평안과 생활상의 안전을 얻을 수 있었다.

#### 주

- 1) Raglan, L., *The Temple and the House* (New York: Norton, 1964), p. 86.
- 2) M. Eliade, *A History of Religious Ideas*, Chicago Press, Vol. 1, p. 3.
- 3) Yi-Fu Tuan, "공간과 장소", 정영철역, (서울, 태림문화사, 1995), pp. 45-46.
- 4) C. Norberg-Schulz, "西洋建築의 本質的 意味", 鄭英洙외역, (서울: 세진사, 1984), pp. 461-462.
- 5) Amos Rapoport, "住宅의 形態와 文化", 송진영 외1 인공역, (서울: 태림문화사, 1985), p. 74.
- 6) 李相海, 宋代理學思想을 통하여 본 전통건축의 구성 방법 및 공간적 특질에 관한 연구, 성대논문집(과학기술편), 제38집 No. 2, 1987, p. 401.
- 7) 安宗守, "易經과 二進法", "주역의 현대적 조명", 한국주역학회(편), (서울: 범양사, 1982), p. 413.
- 8) 천문은 우주의 질서와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 '하늘의 무늬를 읽어' 하늘이 지상의 인간에게 보여주는 뜻을 짐작하려는 것이다.

- 9) 樂者天地之和也 禮者天地之序也 <禮記 37 樂記 19>.
- 10) <家禮>, 卷第一, 通禮, 祠堂條, “凡屋之制 不問何向 背 但 以前爲南, 後爲北, 左爲東 右爲西”.
- 11) 洪升在, “朝鮮時代 禮的 次序體系와 建築의 配置 構造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8권2호(1992.2), pp. 74-75.
- 12) “但神主位次生男西女東 子孫位次則男東女西 此陰陽 之別”, 家禮輯覽, 重行西上條, 沙溪全書, p. 423.
- 13) 그러나 사당에 신주를 모실 때는 서쪽을 상위로 한다. 신주는 서쪽을 상위로 하는 西上의 제도를 따라서 사당 북쪽 편에 서쪽으로부터 高祖, 曾祖, 祖, 父의 순서로 모셔진다.
- 14) 이부영, “한국무속의 심리학적 고찰”, (김인회 외, “한국무속의 종합적 고찰”, 1982), p. 170.
- 15) 張聖浚, “풍수지리국면이 갖는 건축적 상상력에 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제22권 85호(1978), pp. 20-21.
- 16) 崔昌祚,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9), p. 161.
- 17) 金鴻植, 조선말기 양택서에 나타난 민택의 간접이 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88, p. 2.
- 18) 洪升在, 朴彦坤, “朝鮮時代 建築과 禮制에 관한 연구-家廟와 家禮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6권 1호, 1990. 2 참조.
- 19) 김흥곤, 조중근, 손태진, “한국 종가 건축의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3권5호(1997. 5), p. 156에서는 조사대상 37개 종가 중 본채에 대한 좌향이 북동(13/35.1%), 동(11/29.7%), 북(8/21.6%)의 순이었다.
- 20) “묘동실측조사보고서”, 울산대학교공과대학 건축학과, 1987, p. 16.
- 21) 朴明德, 朴彦坤, “朝鮮中期 同族마을의 宗家 擴散 成立過程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7권 제4호, 1991. 8.
- 22) 金聖培, “香頭歌·成造歌”, (서울: 정음사, 1979), p. 174.
- 23) 오방지신이란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위를 관장하는 신으로, 동방의 신 太昊는 봄을, 남방의 신 炎帝는 여름을, 서방의 신 少昊는 가을을, 북방의 신 頊은 겨울을 맡으며 중앙의 신 皇帝는 토를 맡는다.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v.15, 서울.동아출판사, 1985, p. 635.
- 24) 동아원색세계대백과사전, 28권, p. 98.
- 25) 김성배, 전계서, p. 130.
- 26) Grace E. Cairns, “동양과 서양의 만남”, 이성기역, (안양: 평탄문화사, 1984), p. 23.
- 27) A. Rapoport, 전계서, p. 74.
- 28) Tuan, Yi-Fu, Place: An Existential Perspective, Geographical Review, 65(2), 1975, p. 155.
- 29) O. F. Bollnow, “현대철학의 전망”, 이규호역, 한국철학회편(서울: 범문사, 1967), pp. 32-35.
- 30) 손세관,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2호, pp. 46-47.
- 31) Eliade, M., “성과 속”, 이동하역, 학민사, 1983, p. 36.
- 32) Yi-Fu Tuan, *Topophilia*, Prentice-Hall, 1974, p. 30.
- 33) 김한배, “문화경관적 상징성의 체계로 본 한국전통 마을의 경관구조”, 서울대환경대학원, 조경학석사학위논문, 1981, p. 98.
- 34) 김용옥, “여자란 무엇인가”, (서울: 통나무, 1986), pp. 222-241.
- 35) 명당이란 원래 황제가 신하의 拜賀를 받는 땅을 일컫는 용어이며, 혈에 참배하는 곳이 란 의미로 명당이라 칭한 듯하다.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pp. 62-63.
- 36) 穴은 풍수에서 요체가 되는 장소로서, 陽氣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 삶의 대부분을 얹혀 살

게 되는 곳이다. 天穴은 上停, 곧 氣가 위에서 모이는 혈로 高穴을 뜻하고, 地穴은 下停, 곧 아래 쪽의 低穴을 말하며 人穴은 中停, 곧 그 중간에 위치한 혈을 가리킨다.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서울: 민음사, 1984), p. 137.

- 37) 李元教, "傳統住居建築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0, pp. 85-90.
- 38) 임충신, "모공간의 원형- 산과 천", "울산공대 연구 논문집", 8권 2호, 1977; 유재현, "혈과 명당의 관계를 통하여 본 한국전통건축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 "울산공대연구논문집", 10권 2호, 1979.
- 39) "入宅明鏡", 卷上, 竹林書房, p. 14.
- 40) 李相海, "民宅三要를 통하여 본 朝鮮陽宅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제 6호(1988. 12).
- 41) 지신밟기는 마당을 밟음으로서 지신도 밟으며 또 이 신을 향응하고 악신을 물리치려는 것이다. 孫晉泰, "孫晉泰先生全集 6", (서울: 대학사, 1981), pp. 349-352.
- 42) 복토흠치기는 자신의 덕에 의해 발생하는 재복도 또한 이동한다고 믿어진 것에서 유래한다. 任東權, "한국세시풍속연구", (서울: 집문당, 1985), p. 153.
- 43) 조왕동토경은 아궁이를 구축할 때 지신이 머무는 흙을 움직임을 알리며 장애가 없기를 바라며 부르는 것이다. 赤松智城·秋葉隆, "朝鮮巫俗의 研究 上卷", 大阪屋號書店, 1937, p. 577.
- 44) 이렇게 인간이 環境의 認知를 위해 공간 속에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거주 감각에 대한 身體像 理論(body image theory)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은 인간이 자

身과 非自我를 구분하는 방위개념을 발달시켜 환경속의 身體 定位에 의해 환경을 인지하게 된다는 精神分析學的 觀點의 이론이다: C. W. Moore, "身體·知覺 그리고 建築", 이호진의역, (서울: 기문당, 1984), p. 57-68.

- 45) C. N. Schulz. 전게서, p. 14.
- 46) 西垣安比古, "建築儀禮お通して 觀る 朝鮮の "すまい"に於ける 諸場所の 構造", 일본건축학회계획계 논문보고서, No.373, 1987. 3, pp. 83-85.

### 參考文獻

- 1. 金得悞(1984). 증보한국사상사, 大地문화사.
- 2. 김인회(1987).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 3. 都龍昊. 유학적 생활규범에 의한 조선시대 주거 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 1호.
- 4. 朴容淑(1981). 韓國古代美術文化史論, 一志社.
- 5. 손세관. 주거의 의미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 2호.
- 6. 유재현(1979). 혈과 명당의 관계를 통하여 본 한국전통건축의 중심개념에 관한 연구, 울산공대 연구논문집, 10권 2호.
- 7. 李相海. 民宅三要를 통하여 본 朝鮮陽宅論에 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권 제6호.
- 8. 李應熙(1995). 양택론적 방위론의 해석에 관한 연구 - 라반론을 중심으로-, 계명대박사학위논문.
- 9. 任東權(1985). 한국세시풍속연구, 집문당.
- 10. 조성기(1995). 한국전통주택의 안마당에 관한 연구-신화적사유체계를 통하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호.
- 11. 최지희. 조선시대사당의 장소성 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권1호.

(接受: 1998. 12. 22)